

# Light Design

PHOTONICS  
IT Convergence

광주디자인센터  
과장 강승이

디자인과 예술, 그리고 빛의 만남.

문화예술, 디자인을 입은 빛이 생활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한다. 삭막하던 공원, 딱딱한 버스정류장 등은 디자인을 입고 새로운 명소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첨단 IT 기술인 LED를 예술과 접목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 #1.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광주 남구 사동 사직공원 내에 자리잡은 팔각정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1973년 건립된 팔각정은 사직공원에 동물원이 자리잡고 있던 20여 년 전만해도 시민들이 즐겨찾는 놀이공원이자 광주 도심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놀이공원이 조성되고, 도심공동화 등으로 사직공원은 점차 공원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잊혀진 명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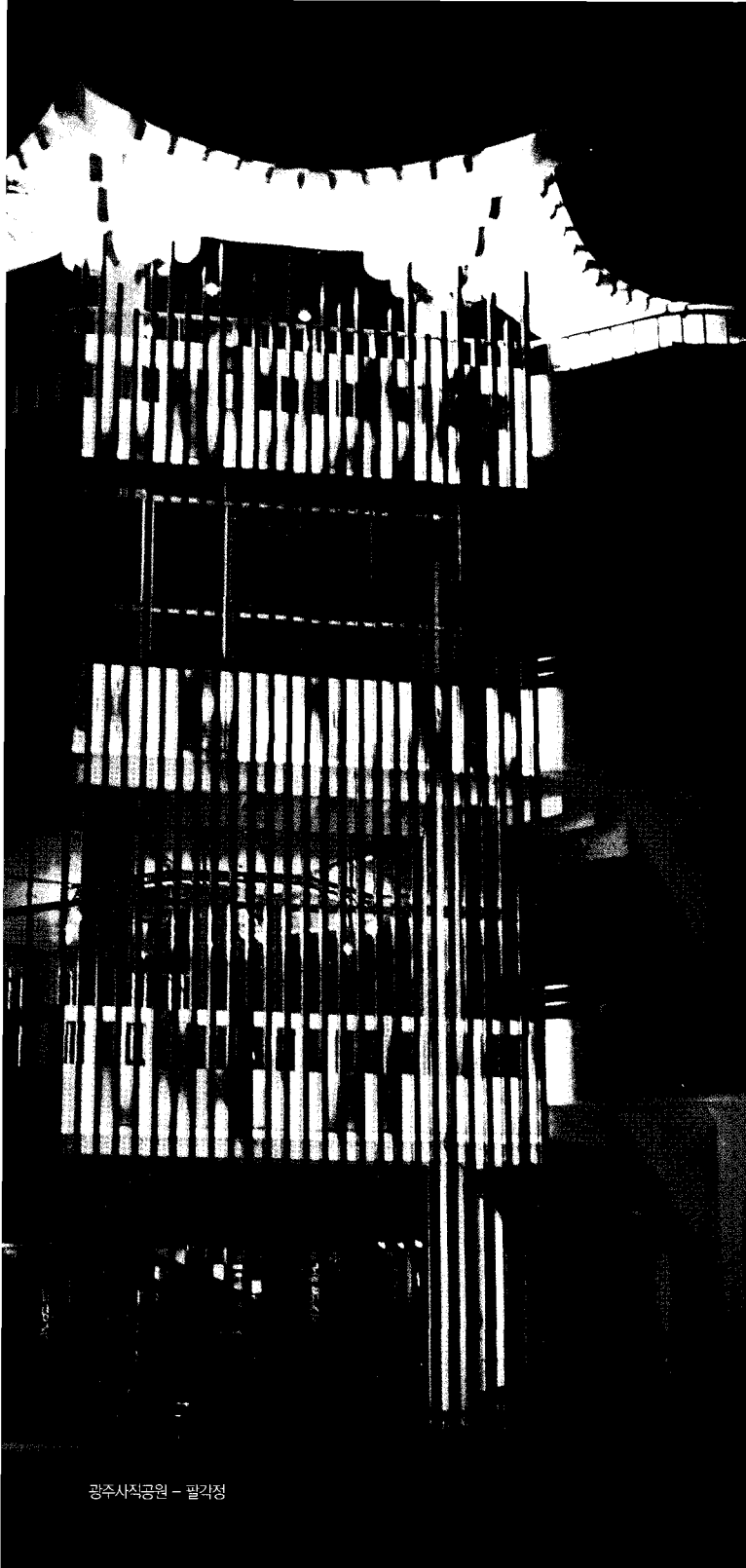
그런 팔각정이 디자인비엔날레를 계기로 '상징조형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맞게 된 것.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개막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프로젝트 중 하나로 팔각정에 디자인을 입혔다.

그동안 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2005년 1회 행사 때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맨디니의 작품 '기원'을 광주시청 미관광장에, 2회 행사 때에는 독일 출신 디자이너 잉고 마우어의 작품 '평화의 빛'을 김대중컨벤션센터 분수대 옆에 설치하는 등 행사 때마다 빛과 어우러진 상징조형물을 설치,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 번 팔각정 디자인은 조병수 조병수건축연구소 대표와 미국의 색채컨설팅 분야 전문가인 질 필라로시아씨가 공동 작업했다.

특히 팔각정 앞마당에 LED가 발광되는 봉들을 설치,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팔각정과 주변 경관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낡은 건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덧입힘으로써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문화쉼터로 기성세대들에게는 옛 명소를 되찾게 되는 즐거움과



광주사직공원 - 팔각정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순히 기념 조형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활용해 작품화 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상, 디자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새롭게 탈바꿈한 팔각정은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의 상징물로서, 광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게 된다.

## #2. 생활 속의 빛

최근 서울 잠실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2009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빛과 예술을 주제로 한 작품 몇 종류가 눈에 띈다. 제11회 스틸디자인공모전에서 스틸가구 부문 대상(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은 The Point and Space라는 작품은 세포의 조직 방법을 모티브로 한 스틸 조명을 선보였다. 조명기구 전문업체인 T조명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예술적 감각의 다양한 조명기구 디자인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 예술과 접목된 조명제품, 나무를 소재로 한 인테리어조명기구, 심플한 디자인의 LED조명기구 등도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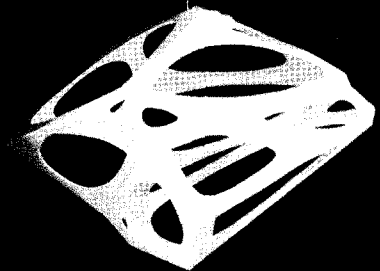
최근 언론을 통해 비춰진 LED로 만들어진 환상적 디스플레이는 단연 압권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홀에서 피터 레들린 크리에이티브 감독이 LED 타일로 만든 구(球) 조형물. 이 조형물은 베이징 엑스포 2010의 독일관에 설치될 것으로 40여만개의 LED 타일로 만들어져 관람객의 목소리에 반응해 사진과 영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참가한 어느 작가는 자신의 작은 명함에 '빛은 세상의 뿌리'라고 했다. 성경 구절(창세기)에도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빛은 인간 삶의 근간임에는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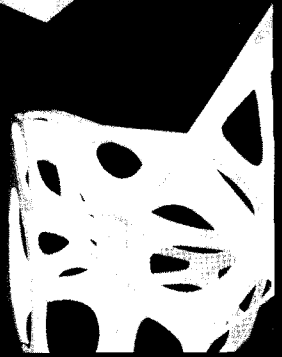


LED구체 - 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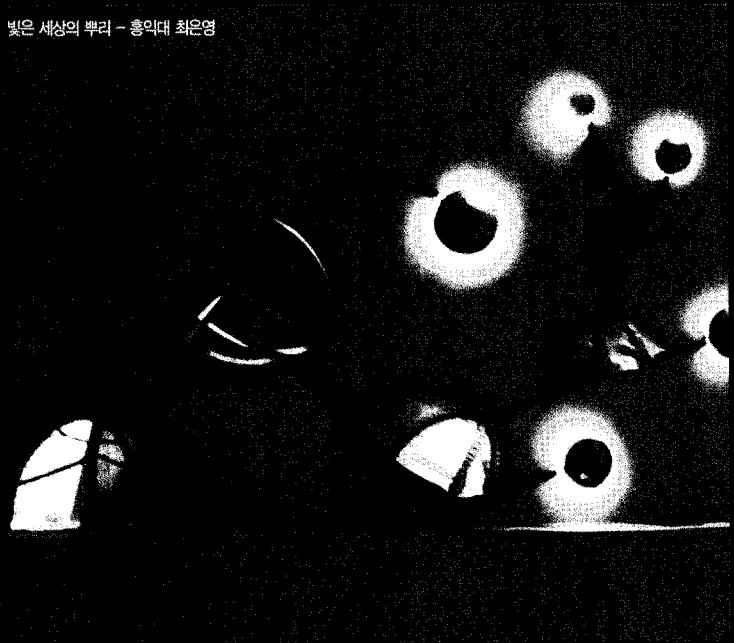
스틸디자인 공모전 대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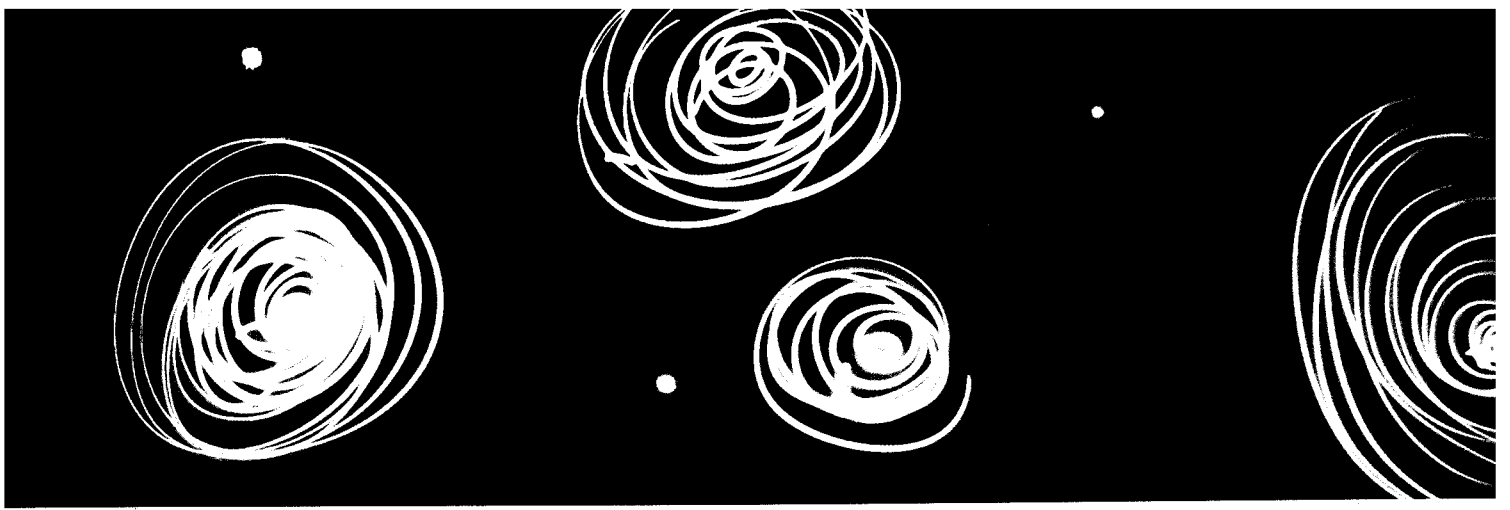


LED실내 조명등디자인



빛은 세상의 뿌리 - 홍익대 최은영





### # 3. 딱딱한 버스정류장의 LED디자인 서울역 앞 대중교통 환승센터에는 LED를 활용한 버스 정류장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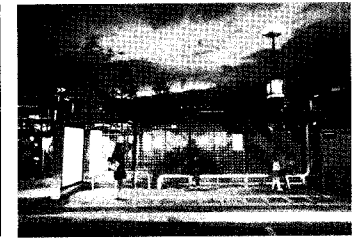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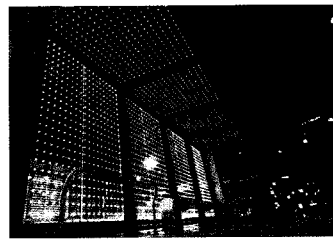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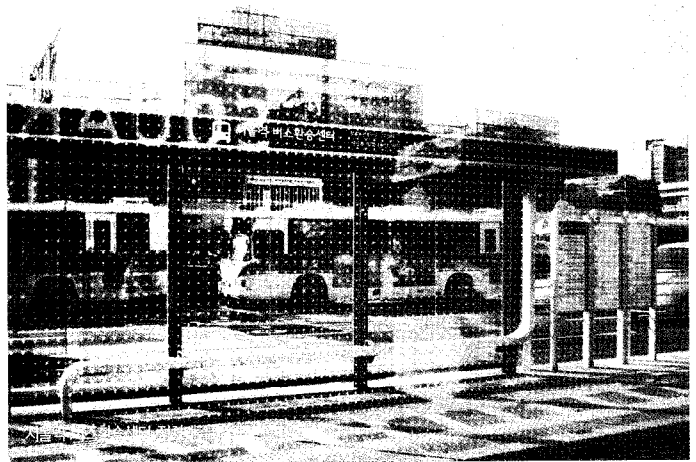
서울역 환승센터내 승차대 12개는 첨단 IT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아트쉼터'로 거듭났다. 버스승차대 천장을 포함해 모든 면을 18mm두께의 파워글래스와 투명한 천연 수지(Resin)로 구성되어 내구성은 물론 이용객들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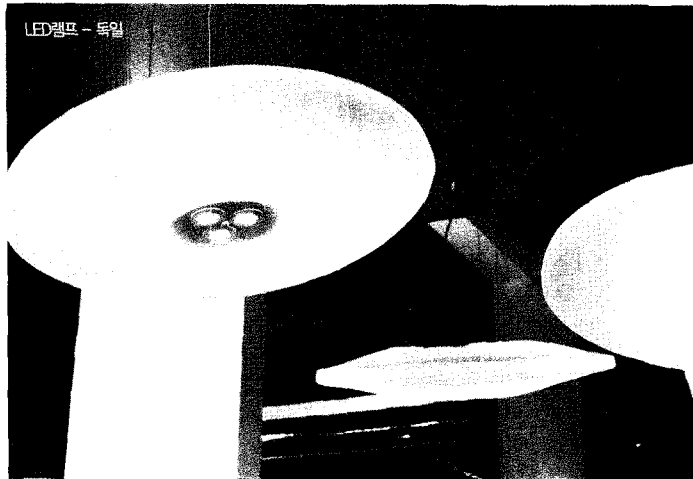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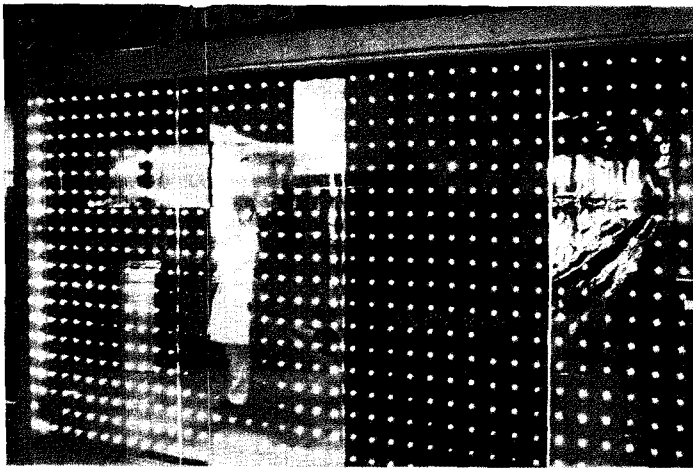
아울러 양면 LED(발광 다이오드)를 외벽 유리 내부에 구현하고, 전도성을 지닌 투명박막인 산화인듐(ITO, Indium Tin Oxide)코팅을 배선으로 이용해, 완전투명한 영상이미지를 구현하는 한편 세라믹 도트(dot) 인쇄로 빛 확산을 통한 광학적 효과를 배가시켰다고 한다. 즉, 두 장의 접합유리 사이로 전기선 없이 양면 발광하는 LED를 심어 빛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불법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 구조물은 최대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고,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조형물로 가치를 더한다.

또한 아트쉼터 하나 당 총 3,680개의 LED소자 모두 거대한 라이팅 큐브가 되어 미디어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버스승차대를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장소 기반 미디어이자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로 모든 면을 구성해 이용자들이 주변 교통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밤 8시 이후 LED를 작동시키게 된다.

외벽에 LED 장치치를 통해 어두워지면 버스 운행 정보는 물론 날씨, 뉴스 등 각종 정보와 예술적인 미디어아트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 IT기술과 디자인 예술이 만나, 편리함과 도시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LED램프 - 독일



조명

화려한 LED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이 정류장은 최근 H카드 광고를 통해 선보이면서 새로운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즐기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 #4. 광주디자인센터, LED디자인 전문인력양성

이같은 시대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디자인센터는 'LED 디자인 전문과정'을 개설했다. 광주의 핵심전략산업인 광산업과의 동반 성장은 물론 국내·외 선도적인 디자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교육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급속한 기술혁신 및 산업성장을 주도할 LED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디자인업계 현장인력에 대한 LED디자인 전문교육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광-디자인산업 융합형 실전교육으로 '광-디자인융합 산·학·산 샌드위치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론을 실전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LED업계와 지역 디자인업계, 지역 작가와 제품디자인 전공 학생들로 팀을 꾸려 협업을 통해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제작을 수행한다. 지역 디자인산업계의 LED 기반 디자인 개발 기술역량을 키우고, 선형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첨단 IT 기술인 LED를 디자인·예술과 접목해 향후 광주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전략이기도 하다.